

불자 세상보기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교수

5월 30일에 19대 국회가 개원된다. 조선 의원들은 금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주권의 상징이고, 민주주의의 동력이다. 이러한 존엄한 명예와 사명을 가진 국회가 새 출발을 하는데 국민들이 무심한 것은 왜 그럴까.

나쁜 관심의 표현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국회가 앓고 있는 만성 척추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 해법에는 두 가지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할 때도 많았지만 막상 국회의원으로서는 역할에 대해서는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비도덕적 환경에 개인이 합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부대중 칼럼



해만스님 동두천 자재암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먼저 승가대중의 도반으로서 사회와 교단을 혼란스럽게 한 부끄러움을 참회한다. 도박이나 놀이하는 사회에서 돈과...

더욱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일반 사람들도 부끄러워 쉬쉬하는 일들을 정신적 리더라 자처 하면서 자행한 것은 정말 깊이 참회해야 할 것이다.

의 상황을 바로 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본다고 하지만 바로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계율을 근거해서 보면 된다.

다고 했다. 업은 신구의 삼업이라 몸도 함부로 놀리지 말고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말도 항상 조심하라고 했다.

19대 국회에 바란다

도덕적 가치관 정립 필요

통합과 화합의 정치해야

불교 편견 시각도 사라지길

사회윤리적 차원이다. 여기서는 사회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다.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물은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는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제일 푸른 곳이다.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물은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는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제일 푸른 곳이다.

계율 지켜야 스님답다

계율은 승단 화합과 상호소통, 융화에 필요하며 그리고 개개인의 수행에 방해되는 것을 막아준다.

계율은 승단 화합과 상호소통, 융화에 필요하며 그리고 개개인의 수행에 방해되는 것을 막아준다.

계율은 승단 화합과 상호소통, 융화에 필요하며 그리고 개개인의 수행에 방해되는 것을 막아준다.

계율은 승단 화합과 상호소통, 융화에 필요하며 그리고 개개인의 수행에 방해되는 것을 막아준다.

社說 아! 시대의 큰 빛 대행 큰스님.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 한마음선원장 묘공당 대행 큰 스님이 5월 22일 오전 0시경 원적에 드셨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통증·관절통증·허리통증·어깨·목통증. 신제품 MSM Glucoid & Omega3 Cream